

조선 최고의 메모광 다산 정약용

◆ 정민 한양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생각이 경쟁력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생각은 종류가 꽤 많다. 곰곰이 따져하는 생각[思]이 있고, 퍼뜩 떠오른 생각[想]이 있다. 떠나지 않는 생각[念]이 있는가 하면, 짓누르는 생각[慮]도 있다. 좋은 생각은 키우고, 나쁜 생각은 지워야 경쟁력이 붙는다. 생각은 힘이 세다. 나쁜 생각은 영혼의 축대를 금가게 하고, 정신을 피폐케 한다.

좋은 생각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조적 에너지를 공급한다.

사람은 생각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은 쉬 달아난다. 달아나기 쉬운 생각을 붙들어 두려면 메모의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그때 바로 적어야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운다. 메모하지 않으면 기억의 저장고에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만다. 생각은 메모를 통해서만 싹을 틔운다. 메모의 습관은 꾸준한 연습 없이는 몸에 잘 붙지 않는다. 밥 먹듯이 메모하고, 숨 쉬듯이 메모해야 습관이 된다.

메모는 창의력의 원천인 동시에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저 적어둔 메모가 세상을 바꾼다. 무심코 기록한 일기가 사료가 되고, 한 시대의 소중한 증언이 된다. 말은 항상 떠돌지만, 기록은 남기는 자를 통해서만 보존된다. 기록되는 순간 그것은 비로소 제 생명을 갖는다.



옛사람의 메모벽은 자못 유난스럽다. 책을 읽다가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으면 메모지에 옮겨 적었다. 바쁘면 책 여백에도 적었다. 생각이 달아날세라 급하게 메모했다. 이렇게 생각이 달아나기 전에 퍼뜩 적는 것을 질서(疾書)라고 한다. 질주(疾走)는 빨리 달린다는 뜻이고, 질서는 겹짜게 메모한다는 의미다. 성호 이익 선생은 자신의 저작에 일제히 '질서'란 말을 붙였다. 『시경질서(詩經疾書)』, 『논어질서(論語疾書)』 같은 이름을 붙인 책이 여럿 있다. 모두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정리해서 책으로 묶은 것이다.

옛사람들의 책상 곁에는 메모지를 보관하는 상자가 으레 따로 있었다. 메모가 쌓여갈수록 공부의 깊이도 더해갔다. 그러다가 틈이 나면 메모지를 꺼내 정리했다. 책 내용을 옮겨 적고 그 끝에 자신의 생각을 부연한 것도 있고, 스쳐가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끄적거린 것도 있다. 메모지를 분류하고, 주제별로 정리하면 그 자체로 한권의 훌륭한 책이 되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이나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僞說)』 같은 책들은 모두 독서 메모를 모아 갈래 지워 정리한 책이다.

박지원은 젊은 시절 파리 대가리만하게 쓴 작은 글씨로 된 메모가 나이 들어 시력이 나빠지는 바람에 읽을 수 없게 되자, 이를 버리며 몹시 안타까워 한 기록을 남겼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바빠 쓴 것이어서 다른 사람은 판독할 수가 없었다. 이 메모를 잘 살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그의 글과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심심하면 심심해서 메모했고, 바쁘면 바쁘대로 적었다. 한가로움을 깨려고 적었다는 뜻의 『파한집(破閑集)』은 고려 때 이인로가 심심해서 당시 고려 문단의 풍경을 떠오르는 대로 메모한 내용이다. 그걸 본떠 최자는 『보한집(補閑集)』을 지었다. 이 두 기록 때문에 우리는 당시 고려의 문단이 얼마나 활동적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홍석주는 벼슬길의 바쁜 와중에도 퇴근 후에 매일 공부에 대한 생각을 메모로 남겨 『학강산필(鶴崗散筆)』이란 멋진 책을 남겼다. 짹짹글이지만, 세상을 보는 눈, 학문과 예술에 대한 그의 안목과 만나려면 이 책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귀양 가 있던 허균은 제대로 된 먹거리 하나 없던 유배지에서 예전 서울 있을 적에 맛나게 먹었던 요리를 하나하나 떠올려 메모해서 『도문대작(屠門大嚼)』이란 음식 책을 남겼다. 자기 위로 삼아 쓴 책이지만, 오늘날에 와서 뜻밖에 훌륭한 요리서의 구실도 한다.



메모의 위력을 가장 잘 알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다. 그는 가히 조선 최고의 메모광이라 할만하다. 틈만 나면 적었고, 떠오르는대로 기록했다. 젊어서 정조에게 『시경』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일이다. 정조는 날마다 엄청난 양의 숙제를 내줬다. 남들이 다 찢찢할 때, 다산만 혼자 척척 해냈다. 그 비결은 평소의 메모 습관에 있었다. 그는 보통 때 주제별 공책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곤 했다. 임금이 어떤 질문을 던져도 공책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었다.

그저 적어둔 메모가 세상을 바꾼다.
무심코 기록한 일기가 사료가 되고,
한 시대의 소중한 증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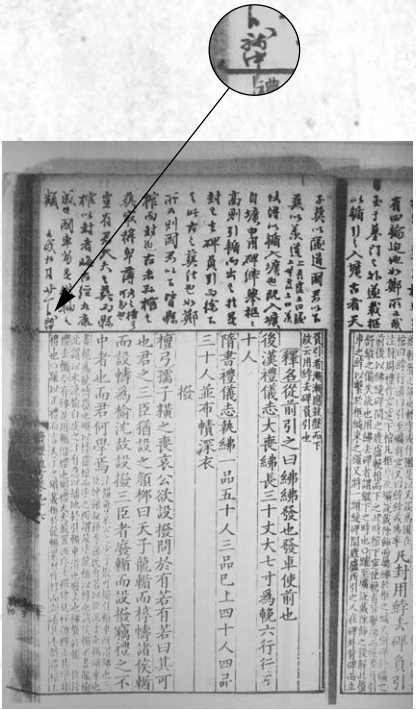
다른 사람과는 애초에 경쟁이 되질 않았다. 시험을 볼 때마다 그는 1등을 독차지했다. 그는 뒤에 정조가 낸 800개가 넘는 작은 질문과 자신의 대답을 묶어 『시경강의(詩經講義)』라는 책을 엮었다. 이 책을 읽으면 당시 공부의 광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날 뿐 아니라, 다산의 폭넓은 섭렵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그런데 그때 함께 공부한 여러 신하들 중에 다산처럼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뒤에 모함을 받아 금정찰방(金井察謗)으로 좌천되어 갔을 때도 재미난 일화가 있다. 갑작스레 떠나 책 한 권 가져갈 수가 없었던 그는 이웃에서 반만 남은 『퇴계집(退溪集)』 한 권을 겨우 얻었다. 제자나 벗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부분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반쪽짜리 책에 실린 퇴계 선생의 편지 한 통을 아껴 읽었다. 아침에 읽고는 오전 내내 그 내용을 음미했다. 생각을 가다듬고 키워서, 점심 식사 후에 오전 내 정돈한 생각을 책의 여백에 빼곡하게 메모했다. 다행히 그는 금방 중앙으로 복귀했다. 서울로 올라 갈 때 그는 이때의 메모를 모아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이란 작은 책 한권을 지었다. 퇴계 선생을 사숙(私淑)한 기록이란 뜻이다. 서문에서 지치고 심란했던 당시에 퇴계의 편지를 통해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다산은 강진에 유배 와서 자식과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메모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 제자가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그 질문과 대답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다. 제자가 무엇을 물으면 말로 먼저 설명해주고 나서, 아예 그 문답을 한편의 글로 써주곤 했다. 『승암예문(僧菴禮問)』은 아들이 유배지로 아버지를 찾아오자, 고성암(高聲菴)이란 암자에 올라가 한 겨울을 나면서, 자식과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을 아들을 시켜 정리하게 한 기록이다. 공부 습관을 배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시켰다.



▶ 다산이 강진 고성암에서 아들과 공부한 문답을 정리한 『승암예문』 첫면



▶ 『독례통고』 상단에 적힌 다산의 메모 끝에 '병중'이란 글씨가 보인다.

아들이 답을 기른다고 편지를 쓰면, 대뜸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 가지 농서(農書)를 찾아서 답에 관한 내용을 옮겨 적어라. 답을 기르면서 네가 보고 들은 내용도 빠짐없이 메모해라. 때때로 답의 정경을 시로 묘사해 기록으로 남겨라. 그것들을 차례 지워 정리하면 훌륭한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책의 이름은 『계경(鷄經)』으로 붙여라”. 다산은 무슨 일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메모하고 기록하게 했다.

다산이 강진 시절에 늘 곁에 두고 읽었던 『독례통고(讀禮通考)』라는 책이 있다. 중국 학자가 예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방대한 내용이다. 다산의 손때 묻은 이 책을 보면 다산의 메모벽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책의 여백마다 다산 특유의 필체로 빼곡하게 메모가 되어 있다. 메모 끝에는 어김없이 기록한 날짜와 장소를 적었다. 이 메모만 봐도 다산이 이 책을 언제 읽기 시작해서 언제 끝마쳤는지 알 수가 있다. 어떤 메모 끝에는 ‘병중(病中)’이라고 쓴 것도 있다. 귀양지에서 아픈 중에도 그는 메모를 쉬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메모가 바탕이 되어 『제례고정(祭禮考訂)』과 『상례사전(喪禮四箋)』 같은 방대한 예서가 완성될 수 있었다.

그 유명한 『목민심서(牧民心書)』도 따지고 보면 메모와 정리의 결과다. 제자들을 시켜서 역대의 역사기록 중에 목민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일정한 매뉴얼에 따라 항목 카드에 메모하게 했다. 나중에 이것을 갈래별로 분류하여 정리시켰다. 다산의 5백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엮어진 편집서들이다. 다산은 조선 최고의 메모광이었을 뿐 아니라 편집광이었다. 어떤 정보든지 그의 손에 닿기만 하면 무질서하게 흩어졌던 자료들이 일목요연해졌다. 평소의 메모습관과 생각관리 훈련이 귀양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놀랍게 꽃피운 것이다. 더 대단한 것은 다산이 자신의 작업 과정을 제자의 훈련 과정과 일치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메모와 정리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후에 제자들도 나름의 역량을 갖춘 훌륭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생각은 힘이 세다. 힘 센 생각은 메모에서 나온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생각은 금세 달아난다.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적어라. 위대한 천재들의 놀라운 성취 속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메모의 습관이 있었다. **IN**

필자 소개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 한국한문학을 전공하였다. 한국18세기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다산선생지식경영법』, 『한시미학산책』, 『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 『미쳐야 미친다』,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외에 여러 책이 있다. 현재 18세기 조선의 지성사와 문화사를 횡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